

# 물의 네트워크

## 20m 아래의 물밀이 보이는 호수

이 공원의 중심인 시코츠호 (支笏湖)는 일본의 호수 중에서 상위레벨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호수로, 호안이 숲으로 둘러싸여 깊은 감색의 물의 빛깔로 호수 주변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시코츠호의 물이 깨끗한 것은 수중 플랑크톤이 적고, 또한 호수 주변을 숲이 둘러싸고 있어 물이 탁해지는 원인이 되는 토사의 유입이나 낙하가 적기 때문이다. 투명

도는 1960년대에는 평균 15~25m, 최근에는 약간 떨어져 평균 15~20m로 추이하고 있지만, 2002년 5월에는 30.7m의 기록이 측정되기도 하였다. 「시코츠호 블루」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코츠호 온천지구에는 숙박시설 등의 배수를 호수의 바깥으로 방류하는 공공하수도가 정비되어 있다.



원시림에 둘러싸인 오키탄페호



후키다시공원의 용수

### 요우테이산 (羊蹄山)의 용수

틈이 많은 용암 등이 겹겹이 쌓여 있는 화산은 눈과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기 쉽고, 이것이 지하수가 되어 산기슭에서 솟아 나온다. 요우테이산의 산기슭에는 10곳 이상의 용수 (湧水)가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동쪽 산기슭에 있는 「요우테이 분출용수」는 용수량이 1일 8만 톤에 이르고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명수 100선에도 들어가 있다. 긴 세월을 지하수로 흘러 여러 가지 성분이 녹아들어 있는 용수는 양질의 미네랄워터이다. 때문에 멀리서 물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다.



시코츠호 (支笏湖) 수중산책



시코츠호 (支笏湖)의 흥연어

### 일본 최북단의 부동호 (不凍湖)

시코츠호 (支笏湖)의 수심은 최고 360m이며, 평균수심은 265m에 이른다. 일본의 호수 중에서는 아키타현 (秋田県)의 다자와호 (田沢湖) 다음으로 깊다. 일본 최대의 비와호 (琵琶湖: 평균수심 41.2m)와 비교해보면, 면적은 약 12%에 지나지 않지만, 수량은 약 75%(수량도 일본 제 2위)에 이른다. 대류에 의해 표층의 수온이 떨어지지 않아 통상 한겨울에도 전면 결빙하지 않는다. 시코츠호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부동호이다.

### 히메마스의 이입과 증식

히메마스는 흥연어의 육봉형 (일생을 강과 호수에서 살아가는 민물고기)으로 홋카이도동부에 있는 아칸호 (阿寒湖)와 치미켄호가 원산이다. 시코츠호 (支笏湖)에는 1894년에 아칸호에서 이입되어 양식에 성공하여 투우야호 (洞爺湖)와 토와다호 (和田湖) 등 홋카이도와 혼슈 (本州)의 많은 호수에 이식되었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어체 (魚体)가 소형화했기 때문에 치시마 (千島)의 에토로후섬 (択捉島)에서 흥연어의 수정란을 이식했던 적이 있다. 낚시가 해금 (解禁)되는 계절에는 시코츠호에 많은 낚시꾼들이 붐빈다.

### 칼럼

### 시코츠호 (支笏湖)~ 치토세강 (千歳川) 과 우토나이호를 연결하는 물의 흐름

시코츠호에서 유출된 유일의 하천 치토세강은 치토세 시내에서 북으로 흘러 이시카리강 (石狩川)에 합류하고, 동해로 흘러들어 간다. 상류부는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맑은 물이 흘러 연어들이 올라온다. 이곳에 있는 농림수산성의 연어 송어 부화장에서는 수차를 이용하여 연어를 포획하는 「인디언 수차」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치토세 (千歳) 나이베츠 (内別) 용수

일찍이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던 이시카리강은 4만 년 전의 시코츠화산의 대분화때 화산쇄설류에 의해 막혀 유로가 북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시코츠칼데라 동부의 산기슭 일대는 용수지대로 되어있고, 그 곳을 수원 (水源)으로 하는 비비강 (美々川)이 남쪽으로, 우토나이호를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